

조선 3사, 연말 수주 붐물... 'LNG선'이 효자네

현대중공업

전세계 발주 절반 넘는 24척 수주

대우조선해양

올 목표 73억 달러의 '75%' 달성

삼성중공업

추가 2~4척 수주면 올해 목표 넘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국내 조선3사들의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수주가 12월에도 이어지면서 올해 목표 수주량 달성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3사들은 올해 목표 수주량의 60%이상을 달성했다. 여기에 글로벌 석유기업 셸(Shell)사가 다수의 LNG선을 이달 중 발주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조선3사들의 수주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가장 많은 양을 수주한 현대중공업그룹은 2018년 수주목표 132억달러의 94%인 145척, 124억달러를 달성하며 LNG선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산하 조선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아시아 선사와 총 3억 7000만 달러 규모의 17만4000㎥급 LNG운반선 2척과 지난달 그리스 CMM사로부터 LNG선 2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들 선박을 오는 2021년부터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로써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45척 중 절반이 넘는 24척을 수주하게 됐다. 또한 이번달에는 프레드릭슨으로부터 LNG선 2척 확정수주가 예상된다. SCF그룹 LNG선의 수주도 기대된다.

현대미포조선은 12~1월 중 셸사로부터 최대 12억달러(확정 6억+옵션 8억) 탱커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월 LNG 이

중연료추진선을 국내 최초로 인도해 이중연료엔진과LNG연료공급시스템 패키지에 대한 기술력을 확인했다. 자체 개발한LNG운반선 완전재액화설비, LNG재기화시스템, LNG병커링 연료공급시스템, LNG화물창 등 LNG선 통합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목표인 73억 달러 대비 75%인 55억달러를 수주했다. 12월 한 달 동안 16억 달러 이상을 수주하면 97%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LNG선 6척 13억달러, 방산 3억달러로 추정된다. 또 마란가스로부터 LNG선 2척 외 4척 이상 확정 수주도 가능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목표 수주액 82억달러의 61%인 50억달러를 올해 수주했다. LNG선을 추가로 2~4척 수주하게 되면 70억달러를 넘을 수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은 올해 연말까지 LNG선 발주가 총 60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에도 꾸준한 발주세가 지속되는 등 2027년까지 연평균 60척 이상이 발주될 것으로 전

망한다.

미국의 적극적인 에너지 수출 기조와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소비정책 등으로 글로벌 LNG의 물동량이 늘어나고, LNG선 운임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LNG선을 제외한 탱크선, 컨테이너선, 벌크선에서는 저가 수주 전략의 중국 조선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NG선 수주가 많다고 해서 조선업 전반의 '호황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지난 2012년부터 6년 연속 중국에 밀려 수주량 2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최근 발주가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쏠리면서 기술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형 조선사는 일감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LNG선 수주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조선 3사가 올해 목표 수주량을 달성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전자는 태국 마하나콘타워 전망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레드 사이니지월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LG전자

태국 최고층 빌딩에 'OLED 사이니지월'

LG전자, 방콕시내 영상 등 재생

LG전자 올레드가 태국 하늘을 오르내린다. LG전자는 최근 태국 방콕 마하나콘타워 전망대 전용 엘리베이터에 OLED(올레드) 사이니지월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올레드 사이니지는 엘리베이터에 문을 제외한 4개면을 감싼다. 하늘에서 보이는 방콕 시내 영상을 재생해 엘리베이터 탑승객에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엘리베이터 2대에 55인치 올레드사이니지를 56장이나 투입했다.

어느 각도에서도 정확한 색을 구현할뿐 아니라 검은색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어 가상현실(VR)과 같은 몰입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도 무게가 LCD 사이니지 40% 수준에 불과해 탑승 제한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하나콘 타워는 높이가 314m인 태국 최고층 건물이다. 78층 루프탑에는 최근 '마하나콘 스카이워크'가 문을 열고 관광 명소로 부상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엘리베이터 '스카이서클'에도 올레드 사이니지 월을 설치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카카오 AI 기술 일반인에 공개

'카카오 i 디벨로퍼스 OBT' 시작

챗봇·음성 서비스 등 AI 제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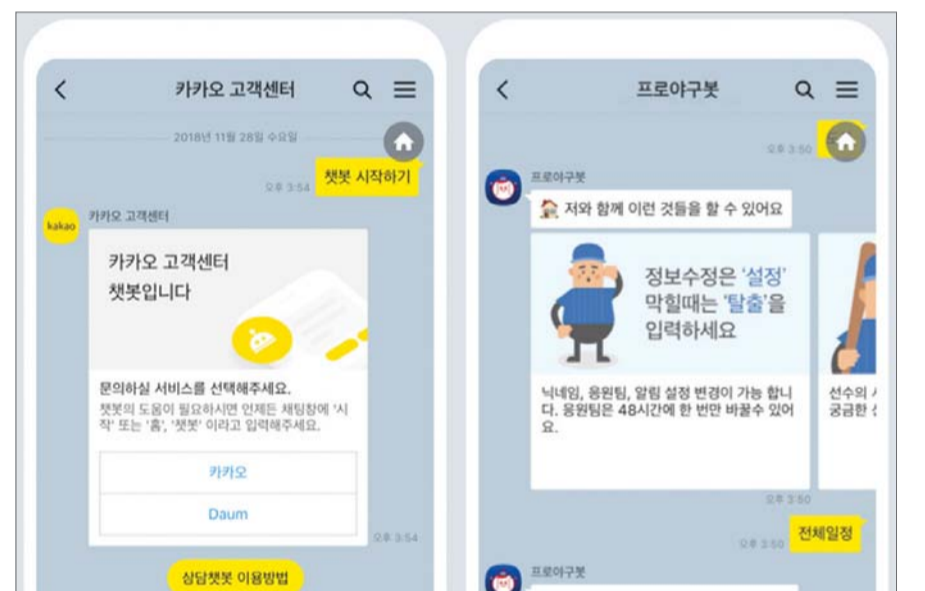
카카오는 카카오톡 인공지능(AI) 개발자센터 '카카오 i 디벨로퍼스'의 오픈 베타 테스트(OBT)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 i 디벨로퍼스에서는 카카오톡의 AI 기술을 사용해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AI 설계 플랫폼 '카카오 i 오픈빌더(이하 오픈빌더)'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오픈빌더 하나의 플랫폼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챗봇, 스마트스피커 카카오톡 미니에 활용되는 음성형 서비스 등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오픈빌더를 통해 1:1 대화형 챗봇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 중인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더불어 일반 개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카카오톡 챗봇으로 음식과 음료 등을 주문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소풍몰의 고객센터 챗봇을 개발해 기본적인 고객 응대, 환불 접수 등을 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카카오 인공지능(AI) 개발자센터 '카카오 i 디벨로퍼스'의 오픈 베타 테스트(OBT)를 시작한다. /카카오

챗봇 제작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누구나 카카오톡 i 디벨로퍼스에서 OBT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오픈빌더를 활용해 직접 챗봇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오픈빌더로 개발된 챗봇과 플러스친구 계정을 연결할 수 있어, 플러스친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플러스친구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직접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챗봇 공식 에이전시를 통

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카카오 i 디벨로퍼스에서는 스마트스피커 카카오톡 미니에 적용할 수 있는 대화형 음성서비스인 보이스봇 설계 기능을 제공하며 제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개발된 보이스봇은 내부 심사를 거쳐 카카오톡 미니의 음성서비스로 적용돼 이용자들에게 제공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삼성 CO2 배출규제 대응기술 업계최초 인증

삼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미국 선급협회(ABS)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스마트십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3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스마트십 솔루션 '일레리만십'에 적용된 이 기술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발 및 도착 항구의 위치정보와 시간을 기록하고, 운항 상태에 따른 연료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한 운항 리포트 생성한다. 이에 따라 수기 작성에 따른 후면여과가 없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아 선박 운영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부터 새로운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십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 LNG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50여척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인증으로 스마트십 기술에 대한 선사들의 신뢰성이 높아져 실선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EU회원국 항만을 입·출항하는 5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료 사용량 등의 운항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EU-MRV'규제를 시행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U+ 골프' 채널 보면서 골프실력 키운다

LGU+ 비시즌 레슨 콘텐츠 강화

LG유플러스는 골프중계 서비스 'U+골프'에서 한국어자프로골프(KLPGA) 투어 비시즌 기간 동안 오리지널 골프 레슨 예능 '셀위골프', SBS골프 해설위원 장훈석 프로의 해설과 레슨이 포함된 실전 영상 등 골프 레슨 콘텐츠를 추가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선보인 U+골프는 200만명 이상의 일별 누적 이용자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KLPGA 비시즌 기간인 내년 3월까지 U+골프 독점 오리지널 골프 레슨 예능 프로그램 '셀위골프(Sha



모델들이 'U+골프'를 시청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l we golf)'를 공개했다. 골프 예능 셀위골프는 미스 수프라내셔널 한국대표이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 이은비와 미스코리아 정두란, 미녀 프로

골퍼 전지선, 최은진 프로가 출연해 실제 필드에서 골프 레슨을 진행한다.

셀위골프는 U+골프 내 단계별 영상 메뉴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두 편씩 공개된다. 이달 중 U+비디오포털에서 360도 가상현실(VR) 영상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셀위골프 외에도 '출전선수 스윙보기' 영상에 SBS골프 해설위원 장훈석 프로의 전문 해설과 레슨이 포함된 영상과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주요 하이라이트 영상 및 단계별 1분 레슨 영상도 추가 제공된다.

U+골프는 가입 중인 통신사 관계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앱스토어 등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